

# THE CLASSIC 500

HIGH CLASS SENIOR SOCIETY & PENTAZ HOTEL MEMBERSHIP MAGAZINE 2016 WINTER VOL. 29

## **TRAVEL**

한겨울에 떠나는 따뜻한 나라, 호주와 뉴질랜드

## **LUXURY STAY**

연말연시에 따스한 추억을 더하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 **GOURMET**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한 라구뜨의 럭셔리 만찬





# CONTENTS

2016 WINTER VOL. 29



**04** NEW YEAR SPECIAL  
2017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트렌드

**08** MEMORIAL PLACE  
가족 기념관으로 변모하는 명가의 장묘 문화

**10** TRAVEL  
한겨울에 떠나는 따뜻한 나라, 호주와 뉴질랜드

**14** LUXURY STAY  
연말연시에 따스한 추억을 더하는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16** GOURMET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한 라구뜨의 럭셔리 만찬

**18** HEALTH  
의사가 말하는 채식암 바로 알기

**20** INTERVIEW  
청춘을 부르는 행복 예찬, 더 클래식 500 김택호 회원

**22** INTERVIEW  
행복의 절정기는 지금입니다, 더 클래식 500 신선화 회원

**24** MEDICAL  
더 클래식 500,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열다

**26** SPECIAL EVENT  
더 클래식 500, 송년 패밀리 파티

**28** COMMUNITY  
더 클래식 500, 2016 WINTER CALENDER

**30** WINTER NEWS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 CLASSIC 500  
MEMBERSHIP MAGAZINE

사내보 / 계간 THE CLASSIC 500 겨울호 통권 29호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발행인 박동현  
발행처 THE CLASSIC 5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82-2-2218-5000 www.theclassic500.com  
기획 및 편집 WE MEDIA +82-2-541-8474  
편집장 공현주 에디터 김기린 디자인 오한정, 유정화 사진 김영진, 김철환, 박유빈(SB1 Studio), 박용진(스튜디오 공사)



# HAPPY, PROSPEROUS NEW YEAR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가장 아쉽고, 가장 설레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지 모를 아쉬움과 상념들은 뒤로하고  
좋았던 한 해, 더 좋을 새해를 바라보며  
따뜻한 연말연서를 준비하세요.

올겨울  
따스한 휴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픈 당신을 위해  
더 클래식 500이 함께합니다.

THE  
CLASSIC  
500

AN AGGREGATE 2012



# 새해를 바라보는 현명한 시각 2017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트렌드

2017년에 대한 부담과 기대가 교차하는 연말연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현대사회지만 좀 더 능동적이고 윤택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스마트한 식견이 필요할 것이다.  
2017년, 변화하는 삶의 패턴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트렌드를 소개한다.



## PART 1

### LIFE STYLE



#### 1 인생은 한 번뿐 오늘을 살자! '올로'

희망찬 새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2017년, 저금리·저성장·저물가가 일상이 된 디플레이션 시대에 새로운 소비 풍속도가 등장할 예정이다. 바로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다. 말 그대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이다. 원래 '올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주로 대화 중 주제를 전환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 2011년 한 래퍼의 노래에 등장해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라'는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유행어가 되었다. 2017년 한국 시장에서 관찰되는 올로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나 '사고 싶은 물건 지금 사세요'와 같은 단순히 충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후회 없이 즐기고 사랑하고 배우라는 삶의 철학이자 현실을 직시하는 소비와 문화



의 트렌드로 폭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를 직면하며 자포자기 하기보다는, 과감히 현재에 집중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려는 모티프라 할 수 있다.

올로 문화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단연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마음에만 품고 있던 세계 일주에 과감히 도전하는 식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스스로 역동적인 여생을 개척하는 5080 시니어 세대들은 젊음으로의 회귀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7명이 청춘의 상징인 '배낭족'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식들이 보내주는 효도 관광보다는 스스로 계획하는 여행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행사들도 액티브 시니어들을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과 특전 등을 앞세우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2 북유럽의 삶을 동경하다 '후거 라이프'

한때 한국인은 웰빙, 로하스, 힐링이라는 트렌드에 주목했다. 이것들도 여전히 유효한 트렌드지만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키포크, 미니멀 라이프에 이어 이제는 '후거'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기존에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따지며 '잘 살자'를 지향했지만 키포크,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후거는 가족, 친구와 함께 '일상을 즐겁게 살자'를 지향한다. 결론은 다 잘 살자는 것이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하루하루 소박한 일상을 누리며 잘 살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후거 라이프의 모습 중 하나는 많은 직장인이 '정시 퇴근'이나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꾼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관과 가족관과 자신에 대한 태도 변화, 행복과 삶에 대한 기준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덴마크어인 '후거(Hygge)'는 '안락하고 아늑한 상태'를 뜻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즐기는 따뜻한 분위기가 일상의 소박함을 즐겁게 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가까운 가족과 동료들과의 커피 타임이나 대화를 통해 일상에서의 여유를 누리며 사람에 대한 애정을 키운다.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 삶의 질이나



1인당 국민소득, 복지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 또 짧은 노동 시간, 국가 청렴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니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도 그들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이미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가구, 조명, 디자인 제품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북유럽의 복지 제도와 교육 제도에 관심도 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준 반전의 산물일 수 있다.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침체 속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없고 그걸 지향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좀 더 단순하게 살면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방법을 찾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출세나 돈보다 일상의 행복에 더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거 문화와 맞닿아 있다. 후거 문화는 우리가 가진 결핍을 채워주는 새로운 욕망이자 우리가 지향할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있다.



## 중년과 노년 사이의 특별 세대, 60대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 이제는 60대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은퇴, 황혼, 노인이란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기대 수명이 80대를 넘어선 만큼 60대에게는 아직 20년의 시간이 더 남은 것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년도 노년도 아닌 특별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60대다. 노령화 시대가 만든 새로운 모습의 60대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의 60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 때 왕성하게 활동한 주역이고, 1990~2000년대 아파트 호황기를 누린 세대기도 하다. 역사상 가장 활동적이고 소비 욕망이 충만한 세대인 것. 이들은 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포미(For Me)'족 성향을 보이거나, 늙었음을 부정하는 '노노(No-老)족'으로 2050세대 시절 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60대의 경우 상위 10~20%의 소비 여력은 그 어느 세대보다 막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인터넷 같은 모바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이들은 온라인 마켓에서도 취미 용품, 화장품, 노인 에티켓 용품, 장난감 등의 구매에도 적극적이다. 또 과거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주로 이용했던 5060세대가 직접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매우 능숙해짐으로써 본격적인 소비 주체로 나서게 된 것. 이제 경제력 있는 60대는 더 이상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2017년에는 60대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급부상한 그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PART 2

## NEW GENERATION



## 2 모바일을 통해 세상에 로그인하다, 20~30대 초반

어느 세대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20대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초반. 이 세대를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인터넷을 유비쿼터스 형태로 경험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온 세대로,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를 뜻한다. 실제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며 사고하고 소통하는 일이 생활이다. 또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저장장기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세대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지만 이들은 기성시대에 비해 초라한 미래를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실속 소비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보내자는 현실지향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유예하면서 안정지향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반면에 사회가 정해놓은 시스템을 벗어나려는 용기와 결단력도 있다.

2017년에는 신사회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가벼움, 실속, 효율, 안정지향, 아웃사이더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회의 중심에서 세계 될 것으로 본다. 안팎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2016년의 대한민국. 더 나은 새해를 한마음으로 바라며 젊은이들의 변화된 일상과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공존한다면 시대의 혼란과 우울감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PART 3  
**CONSUMPTION  
 PATTERN**



**1 탁월한 가성비, 대용량, 짐승 용량 제품 인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불티나게 팔리는 슈퍼사이즈 제품들이다. 한 예로 백다방의 아메리카노를 들 수 있다. 다른 커피 전문점들의 아메리카노보다 용량은 2배, 가격은 반값인 이 커피는 수많은 사람의 인증샷에 등장하는 핫 아이템이 됐다. 그리고 한 손에 쏙 들어오던 60ml의 요구르트는 무려 7.5배나 확대된 450ml 사이즈로 출시되어 편의점 상위 매출 상품에 오르기도 했다. 짐승처럼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 일명 '짐승 용량' 화장품의 출시와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 조사 전문 기업의 모니터에 따르면 성인 남녀 절반가량이 슈퍼사이즈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승 용량 화장품을 구입한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란 대답이 71%로 압도적이었고, 응답자의 63.8%가 대용량 화장품 구입에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운 만큼 슈퍼사이즈들은 당분간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성비, 신개념, B+프리미엄이 더해진 가치 추구**

가격 대비 용량이 많거나 성능이 뛰어난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이 구매의 핵심 고려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가격만이 무조건 먹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소비자는 가성비의 핵심을 저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야 말겠다는 것.

그래서 2017년 가성비의 시대에는 프리미엄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 서적에서는 이 새로운 프리미엄 전략을 'B+프리미엄'이라고 명명한다. B+프리미엄은 평범한 대중 제품인 B등급에 가치, 즉 프리미엄을 추가해 B+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대중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제품을 납득 가능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B+프리미엄 트렌드를 접목한 제품들은 전자제품부터 음료까지 다양하다. LG전자의 트윈워시의 경우 세탁기 두 대를 따로 구매해도 될 만큼 가격이 비싼데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번에 두 개의 세탁물을 분리 혹은 동시 세탁하는 것이 가능해 시간과 공간 효율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노동력까지 줄여주기 때문이다. 코웨이의 듀얼파워 공기청정기 '아이오케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집 안의 실내·외 공기질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가시적 차별화 덕분에 일반 제품에 비해 약 15% 비싼 가격인데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소비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2017년, 일부 전문가들은 어쩌면 가성비 시대의 B+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불황의 벽을 넘는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참고 도서 <2017 트렌드 코리아>(미래의 창), <라이프 트렌드 2017>(대한민국 토틸 트렌드, 2017), <에코 사친 서티스톡 1000 Words>(Shutterstock.com)



# 대한민국의 품격 높은 명가의 철학과 가치를 담다 명가의 장묘 문화, 가족 기념관으로 변모

후세에 귀감이 될 명예로운 삶을 역사적 공간으로 남기는 새로운 장묘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스스로에게는 명예로운 기념관이자 후손에게는 대대로 이어져야 할 보배로운 유산으로 남을 이곳. 한 사람이 산 위대한 생애와 영예로운 순간을 기억하는 방법, 바로 '히스토리움'이다.

## 명가의 생애를 기록하는 특별한 기념관

장묘 문화가 크게 바뀌면서 화장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만 해도 화장 비율은 5명당 1명꼴에 불과했지만, 20여 년 만에 화장률이 4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신개념 장묘 문화를 표방하는 '히스토리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선진국형 가족 기념관을 표방하는 히스토리움은 영예로운 가문의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의 후손들에게 가문과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가족 기념

관이면서 동시에 후손들에게는 명예의 전당이다. 기존에 선호해오던 선산의 개념을 업그레이드해 최첨단 시스템과 품격 있는 서비스로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영예로운 철학과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품격과 명성을 갖춘 히스토리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고 명망 높은 명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대한민국 일류 작가진, 품격 있는 사후 관리 서비스

히스토리움은 기념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택된 영예로운 가문의 이들에게만 허락된다. 후세에 귀감이 될

이들의 기록과 명예를 남기는 만큼 대한민국 일류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도 특별하다. 사진, 초상화, 편액, 흉상, 영상 자서전, 자서전, 봉안함 등을 통해 영예로운 삶의 기록과 명예가 기념비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생전에 전문 기록관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념 물품을 선정하고 개인의 역사를 정리, 전시한다.

히스토리움의 가족 기념관은 각각의 기념관 외에도 층별로 마련된 넓고 편안한 로비, 회원 전용 식당, 별도로 마련된 종교 공간을 만들어 최대한의 편의를 존중했다. 또 향운, 향습 설비를 갖추어 예술품을 보관







2

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고품격 화랑과 같은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첨단 보안 설비를 갖추면서 이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기념관을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개별 온라인 기념관을 볼 수 있어 가문의 영예와 자부심을 한껏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풍수지리와 교통 편의를 만족하는 최적의 입지

용인은 예부터 산세가 수려하고 토질이 순후하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가장 주목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히스토리움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

지면 주북리 58-4번지 일대로, 풍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봉황포란형의 땅으로 생기가 집중된 이상적인 명당으로 꼽힌다.

히스토리움은 규제가 심한 모든 인·허가 및 민원 합의를 완료했으며, 서울에서 30분 거리인 용인과 양지 인터체인지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선산이나 봉안 시설을 찾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지리적 불편함을 해소해주며, 영동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및 개설 중인 분당-평택간 고속화도로가 금년 중에 개통 예정에 있어 사통팔달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 | MINI INTERVIEW |

#### 대한민국 장묘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다 히스토리움, 강재일 대표

최근 국내에서는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국토 훼손 반대 등의 이유로 장묘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호되었던 매장 문화 대신 수목장, 봉안당 등 화장 문화가 늘어나는 추세지요.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최근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선견지명을 가진 분들이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장묘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획일적인 봉안당들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히스토리움에는 사회적으로 명망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잇따르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수도권 근교의 한 봉안 시설에 유산 규모도 상당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화장된 후 후손들이 안치하려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편안한 안치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썩 곳을 추천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주변에서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게 준비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겠지요. 저는 "Well leaving is well liv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히스토리움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영예로운 기념관이자 후손에게는 대대로 이어져야 할 보배로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초의 가족 기념관으로서 존경받는 한 사람의 위대한 생애를 통해 가문의 영예와 자부심을 한껏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02-562-7600

히스토리움 모델하우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25 해암빌딩 17층

히스토리움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58-4의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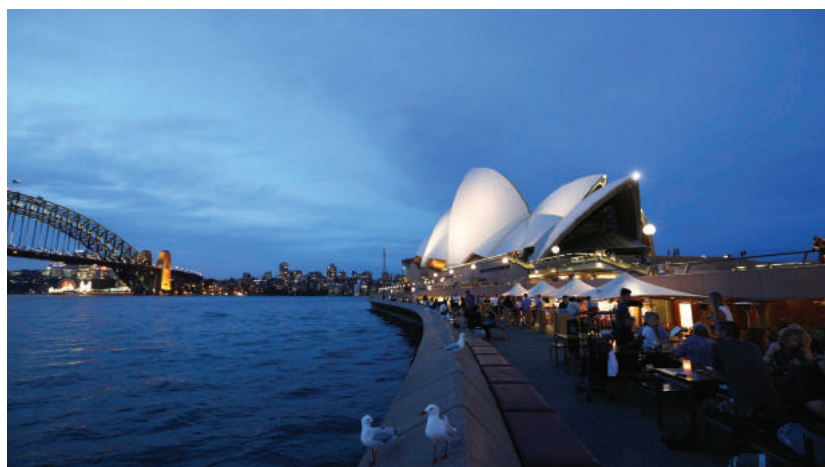
1,2 대한민국 최초의 가족 기념관으로 선보이는 히스토리움 모델하우스 내부, 가족실과 다인실을 갖추고 있다. 3 히스토리움의 가족 기념관은 삶의 기록과 후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주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을 갖추고 있다. 히스토리움 가족 기념관 전면에는 봉안함(유골함)이 보이지 않는다. 전면에는 모두 삶의 기록들만 전시되고 후면에 봉안시설이 구비되어 있다(특허출원). 4 히스토리움 현장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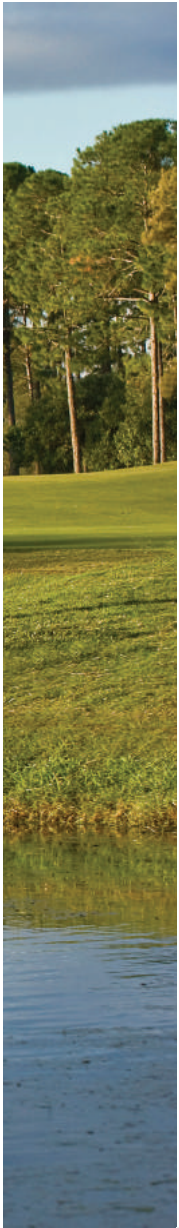


지금 가기 딱 좋은 바로 그곳  
 한겨울에 떠나는 따뜻한 나라,  
 호주와 뉴질랜드

연일 매서운 추위에 여전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다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계획해보자. 기분 좋게 따스한 공기 속에서 이색적인 겨울을 보내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둘러보는 건 덤이다.







## | 광활한 자연 속에 펼쳐지는 끝없는 매력의 호주 |

### 호주 여행의 기본, 시드니와 멜버른 그리고 골드코스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지만 가장 큰 섬이기도 한 호주. 총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 정도로 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바다와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장엄한 절경, 세련된 도시의 감성과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그야말로 호주 여행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올겨울 처음으로 호주 여행을 계획한다면 호주 제1의 도시 시드니와 호주 속의 유럽으로 불리는 멜버른을 리스트에 올려볼 것.

또 케언스, 울루루, 태즈메이니아 등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새로이 주목받는 여행지도 좋다. 먼저 세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자 오세아니아 대륙을 상징하는 최고의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가이드에게서 역사와 건축 과정 등 정보를 들으며 내부 관람을 즐기고, 하버 브리지를 거닐며 시드니의 감성을 마음껏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시드니에서 약 60km 떨어진 블루 마운틴 관광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일일 투어 프로그램으로 손꼽을 만큼 대자연의 통한 힐링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360도 조망이 가능한 곤돌라를 타고 무성한 열대 우림이 두발 아래 펼쳐지는 신기한 장관을 체험하거나 블루 마운틴의 숨 막히는 장관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케이블카, 열대 우림 속에서의 여유로운 산책, 궤도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등 시드니의 도시적인 매력과는 또 다른 자연의 장엄한 풍광을 둘러볼 수 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버른은 호주 최고의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의 노력으로 멜버른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건축과 음식, 예술 등 도시 곳곳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멜버른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약 200km에 이르는 해안도로로 절벽과 기암괴석, 숲으로 둘러싸인 구릉 등이 어우러지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면 서 눈부신 장관을 이룬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겨울 휴양지인 골드코스트는 이색적인 겨울을 만날 수 있는 대표 여행지다. 푸르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휴양뿐 아니라 캥거루가 뛰어노는 아름다운 자연과 명문 골프 코스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추리 코브는 깨끗한 주변 환경과 고급 호텔, 리조트와 명문 골프 코스가 밀집한 지역으로 완벽한 호주 골프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 새로운 호주를 만나고 싶다면 케언스와 울루루

호주의 북동 연안에 위치한 케언스. 따뜻한 햇빛과 포근한 바람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대자연이 선사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중 케언스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데인트리 열대 우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한 지역에서 두 곳이 유네스코에 나란히 지정된 세계 유산이다.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 암초로 옥색빛의 파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수만 가지의 열대 산호초를 감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데인트리 열대 우림에서는 태고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호주 노던 주 남서쪽에 있는 거대한 바위인 울루루.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곳은 지구의 배꼽이라는 별칭답게 호주 원주민들의 성지로 숭배되고 있는 거대한 암석이다. 호주의 웅대한 자연과 야생의 신비를 느낄 수 있으며, 시간대별로 일곱 가지 색으로 변한다고 하니 그 변화무쌍함이 경이롭기만 하다. 본래의 암석 덩어리 가운데 3분의 2는 땅속에 묻혀 있고, 겉으로 드러난 규모만 해도 파리의 에펠 탑보다 48m가 더 높다고 하니 이렇듯 오롯이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산은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봐야 할 명소다.





## |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판타지인 뉴질랜드 |

### 오클랜드에서 시작하는 북섬 투어

천지창조 그대로의 풍광이 유지되어 있는 뉴질랜드. 얼음으로 뒤덮인 산, 깊고 맑은 강과 호수, 문명에 때 묻지 않은 넓은 휴양림과 청량한 공기까지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각 섬마다 다양한 매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북섬에 있는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북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먼저 오클랜드의 고지대인 에텐동산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멀리 와이테마타 항구에서 반짝이는 바다 물결과, 하우라키 만에 늘어선 작은 섬들, 푸른 녹지가 가득한 도시 속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주거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오클랜드 하우라키 만에 위치한 와이헤케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목초지와 올리브 농장, 포도 농장이 가득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어 뉴질랜드에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또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도 유명해 매년 2월마다 와이헤케 와인 축제가 열린다.

북섬의 또 다른 명소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 마타마타 지역이다. 이곳의 호비트 문비 세트장에서는 언덕 위에 아기자기하게 펼쳐진 호비트 마을 관광은 물론 광활한 녹색 대지가 펼쳐진 뉴질랜드의 전경까지 조망할 수 있다. 북섬의 중앙에 위치한 유흐의 도시 로토루아에서는 뉴질랜드 자연의 장엄함을 마주하게 된다. 하루에



도 몇 번씩 솟구치는 간헐천과 뿌연 증기가 가득한 온천 호수, 온천 폭포의 풍광들이 그것. 로토루아 지역의 호수 중 가장 큰 로토루아 호수는 옛날 이 지역의 화산들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웅덩이가 파이고, 물이 고여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호수에서 유람을 즐기는 관광 명소가 됐다. 또 로토루아 근교의 레드우드 수목원은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 배경이 되기도 한 곳. 들어서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최상의 삼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잠깐의 산책으로도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남섬의 풍경

뉴질랜드 남섬 중앙에 위치한 퀸스타운은 여왕의 마을에 적합할 만큼 아름답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수는 길고 좁은 S자 형태로 길이가 77km에 이르는데, 그 투명함에 순간 매료된다. 그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과 호수 주변의 그림 같은 마을 풍경은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모든 여행자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게 한다.

뉴질랜드는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수없이 많지만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곳은 바로 피오르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다.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날카로운 계곡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자연이 빚어낸 숨막히는 절경에 그저 압도될 뿐이다. 그중 밀퍼드사운드 지역은 주변 암벽들의 높이가 1000m가 넘고 그 암벽에서 아름다운 보웬 폭포와 스테링 폭포 등이 쏟아져 내린다. 밀퍼드사운드의 상징인 마이터봉은 거대한 삼각형의 바위산이 바다에서 곧바로 솟아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을 뽐낸다.

또다시 이어지는 남섬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운트쿡 국립공원. '남반구의 알프스'로 불리는 서던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마운트 쿡은 해발 3754m로 뉴질랜드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산악지대 특유의 불안정한 기상 때문에 그 웅대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려면 운이 따라야 하지만, 맑은 날에 올려다보는 하얗게 솟아 있는 봉우리는 정말 감동적이다. 그리고 만년설과 청명한 호수, 푸른 수풀로 둘러싸인 테카포 호수는 터키석과 같은 영롱한 푸른빛을 띠어 그림 같은 전경을 이룬다.

모든 여정을 투자해도 아쉬움이 남을 만큼 호주와 뉴질랜드의 매력은 끝없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 감동으로 다가오는 호주와 뉴질랜드. 매서운 겨울 추위는 잠시 잊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심신이 짜릿한 힐링을 경험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자료 & 사진 제공 하니투어(www.hanitour.com/157-4233), 하이호주(www.hihojo.com/070-7430-8890), 호주관광청, 서티스톡







## 연말연시의 따스한 추억 만들기 한겨울의 낭만이 가득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한 해가 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 몸도 마음도 분주할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편안한 쉼과 휴식이 간절히 필요해진다.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2017년을 잠잠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도심 속 최상의 휴식 공간인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과 함께하자.

###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최적의 공간

아쉬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연말연시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휴식과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도심 속 겨울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한겨울의 낭만이 가득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굳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 2017년 펜타즈 호텔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2017년에는 전 세계의 고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텔 인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우수한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병원들과 연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관광 특화 호텔'로 도약할 것이다. 이미 의료관광객 유치 부분에서는 오픈 이후 매년 1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세일즈 채널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2017년에는 20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있다. 더불어 2017년 3월에는 리뉴얼을 통해

더욱 세련되고 편리한 새 홈페이지를 선보인다. 적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된다. 이에 맞는 모바일 전용 패키지도 출시할 예정. 뿐만 아니라 스위트룸 기준 125.6㎡에 달하는 넓은 객실과 도심 한가운데서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야외수영장은 가족 단위의 고객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2·7호선이 만나는 건대입구역에 위치했다는 편리한 접근성을 토대로 20~30대 젊은 예비부부를 위한 펜타즈 호텔만의 합리적인 하우스 웨딩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 럭셔리 레지던셜 호텔의 중심,

####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2012년 5월 오픈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서울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셜 스타일의 호텔이다. 'PENTAZ'는 완전 무결한 숫자 '5'를 뜻하는 라틴어 'Penta'와 공간 개념 'Zone'의 조합어로 '시대를 뛰어넘는 완결성을 지닌 가장 높은 위치'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펜타즈 호텔은 2년 연속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호텔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도에는 '가족형 호텔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또 3년 연속(2013, 2014, 2015년) '북킹닷컴 게스트 리뷰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을 많은 고객이 즐겨 찾는 이유는 여타 호텔에 비해 넓고 쾌적한 객실과 품격 있는 서비스, 다양한 부대 시설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객실의 경우 125.62㎡의 수퍼리어 스위트와 스위트는 넓고 안락한 객실 타입으로 인기가 많으며, 실속 있는 주니어 스위트와 디럭스까지 총 4종류의 룸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부대 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온천 성분이 함유된 최고급 스파,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야외 수영장, 그 외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와 와인 레스토랑 앤 바 '라비앙로즈', 컨템포러리 카페 '마실' 등에서 각기 다양한 매력의 시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호텔이 위치한 스타시티 복합 쇼핑몰 내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전문 식당가와 패션 매장 등 문화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문의 02-2218-5777



#### | 컴퓨터를 윈터 패키지 |

**스워드 패키지(1박)** 뷔페 라구뜨 조식 2인 식사권, 피트니스 클럽 2인 이용권, 아메리카노와 미니 생크림 케이크 2인 세트,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 2인 세트, 아로마테라피 어메니티 세트, 스파 50% 할인권  
주중 26만9000원, 주말 32만9000원

**수퍼리어 스위트 패키지(1박)** 뷔페 라구뜨 조식 3인 식사권, 피트니스 클럽 3인 이용권, 아메리카노와 미니 생크림 케이크 3인 세트, 리더스 코스메틱 마스크팩 3인 세트, 아로마테라피 어메니티 세트, 스파 50% 할인권  
주중 29만9000원, 주말 35만9000원

\*부가세 포함 가격

\*패키지 이용 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패키지 상품 이용을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펜타즈 호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telPentaz](http://www.facebook.com/HotelPentaz))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널찍한 객실은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2 브라운, 네이비 등 짙은 컬러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차분하면서도 모던하게 겨울 분위기를 낸 침실.







## 입맛을 살리고 활력을 더해줄 겨울 영양식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한 라구뜨의 럭셔리 만찬

추위에 입맛을 잃고 기운이 없다면 라구뜨의 다채로운 뷔페 메뉴를 주목해보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각종 채소와 과일은 물론 영양 넘치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만나 최상의 일품 요리로 선보인다. 라구뜨만의 럭셔리한 맛과 비주얼의 요리들은 연말연시 모임이나 파티 메뉴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 BAKERY

- 1 생과일 타르트** 고소한 버터 향의 타르트 과자 속에 프랑스산 키리 치즈로 맛을 낸 치즈 크림을 넣는다. 그 위에 생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얹고 살구 훈당을 발라주면 과일 위에 살구 향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풍미를 선사한다.
- 2 딸기 파나코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전통 디저트 파나코타는 우유와 생크림, 설탕을 넣고 끓여 젤라틴으로 굳힌 푸딩이다. 딸기 파나코타는 부드러운 향미에 딸기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다.
- 3 딸기 생크림 케이크** 비타민이 풍부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 달콤한 딸기를 케이크 시트 중간에 생크림과 함께 겹겹이 채워 완성한다. 부드러운 케이크 시트와 달콤 상큼한 딸기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케이크.
- 4 프랑부아즈 파운드 케이크** 프랑부아즈를 넣어 새콤하고 향긋한 맛을 살린 파운드 케이크.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해 혈액순환과 항암 효과에 좋은 산딸기를 넣어 맛과 향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COLD

- 1 딸기 아스파라거스 포션** 얇게 썬 딸기 위에 데친 아스파라거스를 얇게 썬어 올린다. 그 위에 새콤한 레몬 드레싱을 뿌리고 부드럽고 고소한 리코타 치즈를 올려 완성한다.
- 2 유자 향의 문어와 가지 문어**는 쿠르부용(식초와 백포도주, 향신료와 채소를 넣고 끓인 육수)에 데치고 소금과 후추로 간한 다음 유자 드레싱을 넣어 마리네이드한다. 튀긴 가지 위에 마리네이드한 문어를 올리고 발사믹 소스를 뿌려 완성한다.
- 3 발사믹 간장소스와 열빙어** 고소한 맛이 일품인 열빙어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한다. 손질한 열빙어를 허브 올리브오일에 발라 오븐에 구운 후 훈추에 마리네이드한다. 그다음 발사믹 식초를 넣어 졸인 뒤 양파 피클을 올려 완성한다.
- 4 배와 고르곤졸라 치즈 샐러드**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의 배는 씨를 제거한 후 슬라이스해 레몬 드레싱을 뿌려 버무린다. 짭짤한 맛이 매력적인 고르곤졸라 치즈를 뿌려 마무리하면 상큼하면서도 풍미 깊은 샐러드가 완성된다.



HOT

- 1 스파이시한 양념을 곁들인 닭고기** 코리앤더 파우더, 백 · 흑후추, 겨자가루, 커민 등 스파이시한 맛을 내는 다양한 양념에 오일, 다진 마늘을 넣어 닭고기와 버무린다. 12시간 정도 마리네이드한 닭고기를 구워내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일품 요리가 완성된다.
- 2 캡시컴 살사의 로스트 비프 스테이크** 고추와 양파, 토마토, 코리앤더 파우더로 만든 드레싱에 마늘과 커민을 넣어 섞는다. 전통적인 프렌치 드레싱과 동서양 조화를 이룬 살사 소스를 소테 한 소고기에 얹어 새콤 매콤한 맛을 낸다.
- 3 먹물 크러스트를 곁들인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와 불리는 아피오스는 사포닌을 다량 함유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익힌 아피오스에 아몬드가루와 오징어 먹물, 버터로 만든 먹물 크러스트를 곁들여 고소함을 더했다.
- 4 궁보소스의 그린 홍합튀김** 바다의 보물인 그린 홍합은 열량이 낮고 비타민 B12, 엽산, 철분 등이 풍부하다. 물에 홍합 살을 깨끗이 씻어 튀긴 다음 달콤 짭조름한 간장 소스를 곁들였다.



KOREAN

- 1 삼채와 닭가슴살 잿즙채** 삼채와 닭가슴살이 만난 신년 건강식으로, 2017년 정유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프리미엄 메뉴다. 삼채에는 사포닌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철분과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잿 소스로 고소한 맛을 더했다.
- 2 우영 탕평채** 섬유소가 풍부하고 아삭하게 씹는 맛이 매력인 뿌리채소 우영채 썬 우영을 청포묵(또는 녹두묵)과 함께 숙주, 소고기, 미나리,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버무린다. 고소하면서 아삭한 맛이 일품인 별미 영양식이다.



JAPANESE

- 1 방어 초밥과 모듬 초밥** 메인이 되는 방어는 지방이 많은 생선 중 하나로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E와 나이아신을 함유해 노화 방지와 피부 탄력 유지에도 좋다.
  - 2 톳과 유부절임** 물에 10시간 정도 불린 톳, 채 썬 당근과 오븐에 구운 건우유를 냄비에 함께 볶은 다음 국간장, 맛술 등을 넣고 자작하게 졸인다. 칼슘과 요오드, 철 등 무기염류가 풍부한 톳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3 유자를 곁들인 굴 남방쓰케(튀김에 소스를 묻혀 차게 먹는 요리)** 영양이 풍부한 굴은 빈혈 예방과 피로 해소에 좋다. 깨끗하게 손질한 굴은 물기를 제거한 다음 전분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긴다. 식초와 설탕으로 맛을 낸 소스에 굴 튀김을 마리네이드하면 향긋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 4 우마니(닭과 채소를 달콤하게 조린 요리)** 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표고버섯 · 당근 · 우영 등 채소는 살짝 데쳐 준비한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닭과 데친 채소를 함께 볶다가 물과 진간장, 맛술, 설탕을 넣고 졸인다.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와 갖은 채소를 활용한 겨울 영양식으로 훌륭한 메뉴다.
- 문의 02-2218-5770





진단 후엔 이미 늦다  
의사가 말하는 **췌장암** 바로 알기

췌장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게다가 눈에 띄는 초기 증상이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예후가 매우 나빠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주의해야 한다.  
예방이 곧 최선인 췌장암, 원인부터 치료 과정까지 제대로 알아야 멀리할 수 있다.



이자의 또 다른 이름인 췌장은 우리 몸 한가운데 후복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의 뒤쪽으로 12~20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담낭, 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 암이 생겨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췌장은 암이 생기면 다른 장기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췌장암 초기에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조기에 발견되는 일이 드물다. 이 때문에 췌장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병 자체가 상당히 진행되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단이 내려지면 예후가 나쁜 암이라 5년 이내 생존율이 가장 낮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기 증상, 황달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검진을 받아 보길 권한다. 만성 혹은 급성 췌장염이 암으로 발전할 경우도 있으니 이 역시도 주의해야 한다.

### 뚜렷한 이상 증세 없어 생활 속 예방이 중요

60세 이상의 고령 남성이라면 흡연을 하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와 담석증 또는 당뇨병 등을 앓았던 병력도 위험 인자이나 역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초기 췌장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거의 없다. 대부분 위 근처와 등이 답답하다거나 웬지 속이 안 좋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하는 막연한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췌장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상들은 췌장암이 아닌 여러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잘 나타나므로 췌장암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 복통, 체중 감소, 황달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특히 복통이 지속되는데 원인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고 공복 여부와 상관없이 소화가 잘 안되거나, 통증이 심해 내시경을 했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엔 췌장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췌장암이 유발하는 복통의 특징은 갑아내는 듯 아프다는 점이다. 때때로 오목가슴에서 등으로 통증이 방사되기도 해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는 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보인다. 또 몸이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도 주의해야 하며, 이때에는 몸이 가렵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췌장암의 위험 요소들

#### 확실한 위험 인자

60세 이상의 고령 남자, 남녀 비율 2:1, 흡연, 만성 췌장염

#### 가능한 위험 인자

오래 지속된 당뇨, 고지방식, 약물 혹은 화학약품

### 속이 답답하고 황달이 있다면 검진 받을 것

일반적으로 막연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부 초음파 검사나 내시경, 위 X-선 검사 등을 실시한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통증이 있거나 황달이 있는 환자에게 담석증을 감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췌장의 종양이나 담관 확장, 간으로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자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 제약이 따른다. 이것으로도 명확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컴퓨터 단층촬영술(CT)이나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초음파 검사 이외의 방법으로 몸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가장 민감한 검사 방법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로, 췌장 종양과 만성 췌장염을 구별하고 작은 종양을 진단할 수 있다. 췌장암의 병기를 결정할 수 있어 일반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보다 유용하다는 보고가 늘고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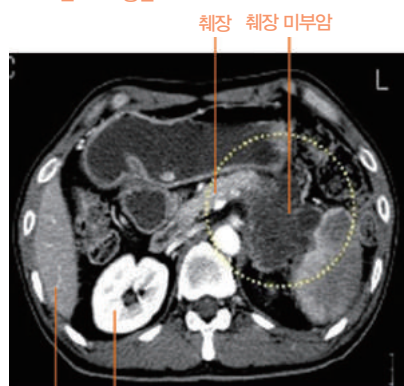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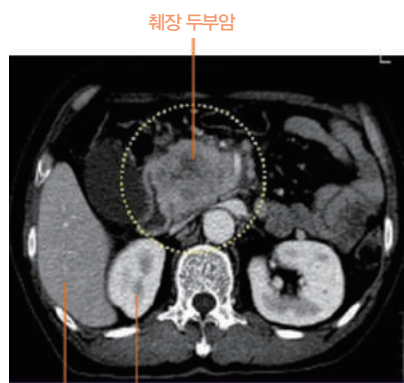
### 환자 상태에 맞춘 병행 치료가 효과적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외과적인 절제다. 하지만 근치적 수술은 췌장암 환자의 10~15% 정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술, 방사선 요법과 항암 요법 등과 함께 병행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보고를 종합해보면 항암제를 시행했을 때 반응률은 0~20%, 평균 생존 기간은 1~6개월 정도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만 한 경우와 수술, 방사

선 치료, 항암제 등을 병행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가 치료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췌장암은 수술적 종양 절제가 가능한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황달 등 담관 폐쇄 증상이 있을 경우 내시경 담관 배액술(내시경을 이용해 십이지장에서 담관으로 배액관을 삽입하는 방법)이나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해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해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한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췌장암은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도 5개월 정도다. 따라서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예방 수칙이나 권고 기준은 없지만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흡연이나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습관을 멀리해야 한다. 급성 혹은 만성 췌장염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진료는 물론 췌장암 위험 요인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암 판정을 받더라도 환자 자신의 노력과 지속적인 진료가 뒷받침된다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증, 분노보다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1588-1533(건국대학교병원)



췌장암을 컴퓨터 단층촬영술로 본 결과. 위쪽은 췌장두부암, 아래쪽은 췌장미부암의 모습이다.

“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예방 수칙이나 권고 기준은 없지만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흡연이나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습관을 멀리해야 한다. ”



### 심찬섭 교수 약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 순천향대학교병원 병원장 역임
- 순천향대학교병원 석좌교수 역임
-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병원센터 센터장 역임
-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병원센터 교수
- 現 건국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 센터장





청춘을 부르는 행복 예찬  
“오늘도 감사합시다!”  
더 클래식 500 김택호 회원

젊게 살고 싶다면, 김택호 회원을 만나보라. 그는 자신만의 ‘젊음 주머니’에서 감사일기 쓰기, 8만6400초의 법칙, 하헤히호후 웃음법, 감사미소 구호 등 다양한 묘수들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가 가장 마지막에 꺼낸 비장의 카드는 ‘행복은 이미 내게 있다’는 마음가짐이었다.



반가운 첫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김택호 회원(81)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보여준다. 동그란 얼굴에 곡선 3개로 완성된 스마일. 그가 스마일 스티커를 전파한 지도 벌써 25년째다. 어딜 가든 항상 수첩 속에 스마일 스티커를 넣고 다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한 장씩 붙여주는데, 누구든 그의 이 ‘귀여운’ 행동에 한 번씩 웃게 된단다. 이 스마일 스티커를 부적 삼아, 감사를 주문 삼아 언제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스스로 찾는 그였다.

### 진정한 행복 찾아 워커홀릭에서 감사 전도사로

그는 1963년 입사해 1999년까지 37년간 현대 그룹 내 7개 회사에서 일했다. 현대건설 공채로 입사해 현대중공업 창설 멤버로 일하다가 현대시멘트, 현대전자, 현대로봇산업, 현대중전기를 거쳐 현대정보기술 사장직까지 올랐다. 그렇게 승진을 거듭하기까지 그는 끝을 모르는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다. 한창 일에 빠져 있을 때엔 고 정주영 회장의 경영 어록 중 하나인 ‘해봤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만큼 어떤 일도 불가능은 없다는 마음으로 직접 뛰어드는 행동과였던 것이다. 37년을 일하면서 그는 행복보다는 사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우연히 접한 책 한 권에서 시작된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까지 일에만 몰두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때였다. 소냐 류보머스키라는 심리학 교수의 〈How to be Happy(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행복의 절반 이상은 돈이나 권력, 좋은 집과 비싼 차 등과 같은 환경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 속에서는 다른 말을 하더군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 환경에 의한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는 유전에 의해 나머지 40%는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죠. 아! 나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2013년 1월에 그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감사나눔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거기서 그는 벽면을 가득 채운 100감사 1000 감사 샘플을 걸어 놓은 휘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바로 감사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감사도, 사랑도, 행복도 연습이 필요해

행사를 다녀온 다음 달인 2013년 2월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할 거리를 쓰는 것도 다소 시간이 걸리고 고심했지만 하나 하나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 끝없이 생겨나는 게 놀랍고 또 감사했다.

“일상 곳곳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일이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일기를 통해 제 일상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죠.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맛있는 차를 이렇게 예쁜 컵에 담아 마실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아주 소소한 일에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더군요. 요즘은 감사할 거리를 하루 10가지 이상 쓰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의 삶 자체를 즐거움의 원천으로 만들어준 감사일기 쓰기를 요즘은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다닌다. 스마일 스티커를 나눠주는 것 역시 그의 삶을 바꿔놓은 중요한 습관. 많은 해외 바이어를 만날 때에도 그는 첫만남에서 스마일 스티커부터 나눠줬다. 그러면 누구든 경계심을 허물고 웃는다. 금방 친구가 되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행복이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런 퀴즈를 냅니다. 당신의 통장에 누군가가 8만6400원을 꼬박꼬박 넣어주되 그 돈은 하루밖에 유효하지 않다. 그럴 때 당신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누구나 그 돈이 아까워서 쪼개고 쪼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Time is Money, Time is Life.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당신은 매일 매일 주어진 이 값어치 있는 시간 8만6400초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이 청춘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고부터 그에게 하루하루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나이가 어떻든 행복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문한다. 지난 1999년 은퇴한 그는 바로 2000년 1월부터 대기업 경영자, 교수, 변호사, 해외 전문가 등 30여명과 함께 (주) 프리씨오(Free-Ceos)를 만들어 신생 기업과 중견 기업의 해외 네트워킹을 비롯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2009년 더 클래식 500에 입주한 이후에도 감사를 전파하려는 그의 활약은 멈추지 않는다. 좋은 책, 좋은 글귀, 명언들을 모아 주변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7년째 매월 A동 옥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일 년에 한 번 할 필요가 있나요. 비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 그것은 장밋빛 용모, 앵두 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자태가 아니라 /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중략)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 그대는 팔십 세 일지라도 / 영원히 청춘으로 남을 것이다.”

사무엘 울만 〈청춘〉 중에서



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한 번씩 옥상에 올라 기도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합니다. 함께 해돋이를 즐기면 마지막엔 행복한 삶의 기본인 ‘감사미소’ 구호를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헤히호후 웃음법에 따라 박장대소하며 마무리하죠.”

김택호 회원은 삶의 활력을 더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또 한 번 스스로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 때문에 누구 만나도 스마일 스티커를 전하고, 웃음법을 나누고,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가 행복해지길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젊어지는 비결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귀띔해주었다.

“하루의 모습은 곧 일주일의 모습이 되고, 한 달, 일 년 그리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행복을 느끼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변의 모든 사건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헤히호후 웃음법 가슴, 어깨, 머리, 배, 단전을 차례로 두드리면서 박장대소 하는 것으로 한국웃음연구소에서 개발한 웃음법.



인생은 아름다워  
행복의 절정기는  
지금입니다!  
더 클래식 500 신선화 회원

차디찬 겨울, 눈 속에 피는 꽃들이 있다. 그 꽃들은 유난히 향기가 짙다.  
힘든 상황을 겪고 더 클래식 500에 자리를 잡은 신선화 회원의 삶과 닮아있다. 이 곳에서  
꽃피운 그녀의 진가는 유독 향기롭고 아름답다.







일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운 피부와 생기로운 미소가 눈에 띄는 신선화 회원.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우아함까지 그녀에게 고생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맡아야 했던 회사 운영과 빚, 홀로 세 아이를 길러야 하는 삶의 무게까지 신 회원이 감당해야 할 짐은 생각보다 컸다.

힘든 시기를 겪고 더 클래식 500의 초기 멤버로 입주한 지 7년째. 이제는 운동과 다양한 취미 활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만큼 그녀는 스스로 얻은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 위기 속에서 진기를 발견하다

1997년 한국 IMF 외환 위기에 신선화 회원의 남편이 운영하던 섬유회사도 경영 위기를 맞았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레 남편은 지병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가장을 잃었다는 슬픔을 미처 추스르기 전에 그녀는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가족들을 위해 뒷바라지만 하던 평범한 주부였다. 그런 그녀가 한 회사를 맡아 운영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세금을 내는 것부터 거래 업체들과의 관계, 자금 운용, 직원 관리 등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대학생이던 아들과 매일 밤낮없이 공부했죠. 낮설고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은 도미노처럼 한 번에 쏟아지기도 한다. 그녀가 겪는 상황들이 그랬다. 하지만 스스로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두려움 대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어 못 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휘몰아친 악재를 몰아내고 나니 스스로에게 무관심했던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 춤과 여행을 통해 은퇴 후 삶의 리듬을 되찾다

그녀가 더 클래식 500을 알게 된 건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의 소개 덕분이었다. 멋스러운 외관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즐기는 활기찬 입주민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저만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더 클래식 500을 알게 됐고, 많은 친구와 즐겁고 건강하게 은퇴 후 삶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신 회원이 더 클래식 500 입주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클래식 춤 동호회 때문이었다. 입주 후 지금까지 6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는 기본기를 배우는 데만도 며칠이 걸렸단다. 하지만 왈츠와 탱고 등 스탠더드 댄스는 종목마다 동작 하나마다 그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때부터 신선화 회원은 일주일에 대여섯 번 춤 동호회 활동을 할 만큼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춤을 추면 체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생활 리듬의 템포가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보다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제가 먼저 선생님께 개인 연습을 시켜달라고 할 만큼 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올해엔 서울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린큐 댄스룩 2016 패션쇼’ 무대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프로들과 함께 서기도 했어요. 스스로 이만큼 실력을 쌓아 올렸다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죠.”

춤만큼 그녀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일은 언제나 그녀를 설레게 한다. 낯선 광경들과 마주할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다시한번 느낀다. 언제나 마음맞는 친구들과 함께 일정을 계획하고, 훌쩍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더 클래식 500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눈치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엄마 혹은 여자라 불릴 때 그랬죠. 하지만 더 클래식 500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금의 제 삶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든 당당하고 편안하게, 춤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나를 사랑하는 지금이 바로 행복 절정기

다채로운 세대가 모인 트래블 메이트들과 함께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도 훨씬 넓어진다. 더 클래식 500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들과의 여행은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싶을 만큼 평화롭다. 홀로 움츠러들기 보다 나서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모임에서건 그녀는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으로 기억된다.

“여행 도중 크루즈 파티 때 다들 춤을 추고 싶지만 눈치만 보더라고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도 주춤했는데, 재밌게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자신있게 먼저 무대에 나섰죠. 두려운 마음은 내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제 나이보다도 10년은 더 젊고 아름다운 비결이 분명 있을 것 같아 물었더니 대답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란다.

“춤을 추기 전부터도 헬스를 하거나 땀을 흘리며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일입니다.”

한 번에 휘몰아친 위기는 분명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의지를 꺾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준 것은 틀림없다. 덕분에 지금 더 클래식 500과 함께하는 때 순간은 행복하기만 하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그렇듯 쓰디쓴 이쁨 이후 찾아오는 행복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달콤하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평생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갖게 되었다. 내 삶을 사랑하는 지금이 인생의 행복 절정기이기 때문이다.



# 더 클래식 500, KAIST의 'Dr.M'사업 컨소시엄 참여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여는 선구자로 나서다

더 클래식 500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손을 잡았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 건강관리솔루션 개발을 위해 더 클래식 500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약속했다. 향후 더 클래식 500 회원들은 물론 국내 시니어 계층을 위한 성인병, 만성질환 및 각종 중증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첨단 기술로 발전 시킬 계획이다.





지난 11월 11일, 대전 KAIST에서 'Dr.M 사업 컨소시엄 발족 및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Dr.M(닥터엠)'은 KAIST 헬스 사이언스 연구소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Dr.M 사업은 통합적으로 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AIST는 이날 컨소시엄을 통해 Dr.M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테스트, 원활한 시범 적용 등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해 여러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더 클래식 500뿐만 아니라 LG 유플러스, 한글과 컴퓨터, 국립중앙의료원, 대전선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 노블카운티, 을지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앞으로 Dr.M 사업의 실증화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기관으로서의 협업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Dr.M 산업과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미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더 클래식 500, 스마트 헬스케어로 시니어 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시작하다

Dr.M 사업은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술과 이를 전달하는 저전력 통신 기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로 질병을 분석하고 예측해 건강을 유지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발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의료계의 혁신적 분야였던 만큼 이 사업은 KAIST 전자전기공학부, 전산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기술경영학과 등 여러 분야에서 총 28명 교수가 참여했다. 이후 KI 연구원 사업으로 일관되면서 I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그 결과 헬스케어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전력 통신 기술 등 총 40종의 헬스케어 기술이 결합되어 마침내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된 Dr.M의 스마트 센서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에 적용되어 KAIST 내 350여 명의 구성원에게 배포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날 컨소시엄에서 KAIST 헬스 사이언스 연구소의 정용 소장은 “지금까지 Dr.M의 사용 대상을 젊고 건강한 기존 KAIST 구성원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노인층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넓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IST 강성모 총장은 “우수한 기업들과의 협업은 새로운 센서를 개발하거나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모자란 것을 연구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KAIST가 해야 할 일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AIST의 기술이 세계에서 선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며 Dr.M 사업에 대해

확고한 포부를 밝혔다.

이후 각 관련 기관 인사들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더 클래식 500 박동현 사장은 “이번 Dr.M 사업에서 더 클래식 500이 핵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주요 수혜자인 시니어 대상 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중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열의를 표했다.

### 최첨단 헬스케어 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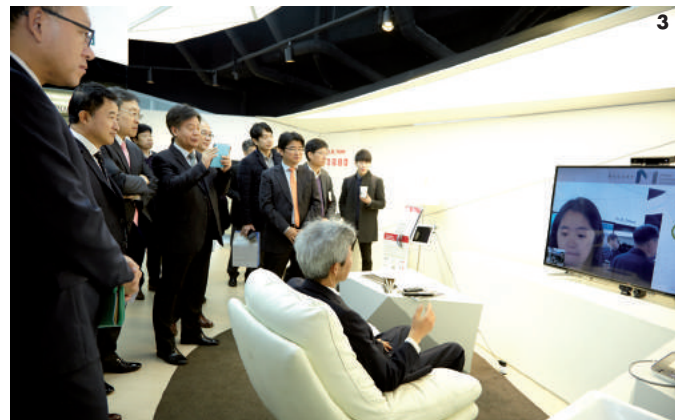
#### 직접 체험하다

KAIST 헬스 사이언스 연구소는 이날 컨소시엄에서 Dr.M 쇼룸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놀라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면, 기상, TV 시청 등 가정에서의 일상적 활동 중에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Dr.M Home', 환자의 데이터를 전달받아 병원에서 진행되는 '원격 진료', 사용자 관제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생체 정보·위치·긴급 상황을 파악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인 'Dr.M Hospital', 센서에서 측정된 생체 신호 데이터가 수집·저장·공유되는 EagleEye를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r.M Data Linkage Platform' 등을 구현했다. 또 착용형 다채널 ECG 패치로 어디서든 손쉽게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K-PATCH:Mobile ECG Patch', 손톱에 부착해 정확한 심박수를 측정하는 'Stick-on:손톱 PPG 센서', 호흡 시 날숨의 여러 성분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휴대용 날숨 센서', 뇌파도(EEG) 분석으로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안경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웨어러블 뇌파 감지기', 뇌출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기 뇌혈류 탐지 기술' 등 Dr.M의 테스트베드에 사용된 주요 기술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었다.

### 첨단화되는 더 클래식 500

#### 스마트 헬스케어 선두주자로 우뚝

더 클래식 500은 Dr.M사업 컨소시엄 참여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는 곧 입주회원이 이용하는 모든 제품에 IoT 기술이 탑재돼 언제 어디서든 건강 체크가 가능하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걸 뜻한다. 이미 더 클래식 500은 Dr.M 사업 외에도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상용화에 가까이 다가선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슈즈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더 클래식 500은 스마트슈즈를 신은 입주회원들의 걸음걸이 데이터를 분



1 Dr.M 사업 컨소시엄 발족 및 업무 협약식을 위한 각 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Dr.M에 적용된 모든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Dr.M 쇼룸. 3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Dr.M Home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4 컨소시엄이 끝난 후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스피치가 진행된 Dr.M 디지털 헬스케어 심포지엄이 이어졌다.

석해 신체 불균형, 하지근육 약화 등 낙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각각의 건강상태 맞춤형 운동치료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

더 클래식 500은 테스트 제품의 범위를 점차 확장, 도입해 입주회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현 사장은 “시니어타운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다. 그만큼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2017년부터는 KAIST 및 LG전자와의 협력 사업 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함께라서 더 즐거운 송년 패밀리 파티 더 클래식 500의 ‘별이 빛나는 밤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 특별한 송년 파티가 열렸다.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음악으로 흥겨워지는 시간. 더 클래식 500의 송년 패밀리 파티 덕분에 하늘엔 별이, 모두의 마음속엔 행복이 반짝이는 밤이었다.



## 연말 분위기가 가득한 라이브 카페에서의 파티

지난 12월 13일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들을 위한 송년 패밀리 파티, 2016 ‘별이 빛나는 밤에’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더 클래식 500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올 상반기에는 두 번째 패밀리 골프대회를 통해 자연 속에서 즐거운 휴식을 즐기며 입주 회원 간 끈끈한 우정을 쌓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주로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클래식이나 가요, 국악 등 음악이 함께하는 송년 파티를 준비해왔다. 올해도 역시 분위기가 좋은 음악은 함께했지만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더 클래식 500 내부에서 진행되

었던 것과 달리 서울 근교로 자리를 옮겨 한층 분위기가 있는 공간에서 송년 파티를 한 것이다.

행사 당일, 사전 예약한 150여 명의 회원들이 더 클래식 500 로비로 모였다. 많은 회원과 함께 색다른 송년 파티를 즐긴다는 기대로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다소 포근했던 겨울 날씨를 즐기며 회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올 송년 패밀리 파티가 펼쳐진 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자리한 라이브 카페 ‘송아(Ssonga)’. 크리스마스 캐럴이 은은하게 흐르는 이곳은 1층과 2층 모두 가수들의 스테이지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더 클래식 500의

박동현 사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다. “자타공인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시니어들과 함께 올해도 즐거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내년에도 더 클래식 500이 준비한 최첨단 서비스를 즐기며 한층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한 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승 운영위원장은 오감을 만족할 만한 좋은 송년회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참가한 입주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클래식 500과 함께 더없는 행복을 누렸듯 앞으로도 서로에게 더 좋은 이웃, 친근한 언니 동생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독려하기도 했다.





2



3



4

1 경기도 하남시에 자리한 라이브 카페 '송이(Ssonga)'에서 열린 송년 패밀리 파티. 2 송년 패밀리 파티의 대미를 장식한 가수 송창식과 기타리스트 함춘호의 동반 무대. 3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흥겨웠던 노래 장기자랑. 4 추억의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회원들의 모습.

사진 박용진

### 추억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음악과 함께

첫 무대부터 흥겨운 통기타 선율에 겨울바람에 읊조렸던 기운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음 순서로는 입주 회원들의 노래자랑 시간이 펼쳐졌다. 현장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장기자랑 시간은 노래 솜씨도 뽐내고 상품도 받아가는 등 재미를 더했다. 박인선, 허진아, 김영택 회원의 수준 높은 노래 실력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더 클래식 500의 박동현 사장도 특별한 송년 파티에 흥을 돋우기 위해 '젊은 그대'를 열창했다.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를 더해주기 위해 듀엣 한마음 출신의 포크송 가수 양하영의 무대가 이어졌다. '가슴앓이' '갯바위' 등 친근한 노랫말 속 우수에 찬 듯 애절한 보이스와 열정적인

무대 매너가 듣는 모두를 감성에 젖게 했다. 이번 송년 행사에서는 스테이크 정식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를 먹으며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더욱 편안한 시간이었다. 삼삼오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입주 회원들은 노래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내년을 위한 덕담을 전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행사 가운데에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었다. 12월에 생일과 기념일을 맞이한 회원들에게 행운의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송년 패밀리 파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바로 가수 송창식과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는 함춘호의 동반 무대. 변함없이 담백하지만 깊이 있는 송창식의 목소리와 부드럽게 마음을 울리는 함춘호의 기타 선율이 모두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노래를 들으며

저마다 마음에 담아둔 그리운 순간들을 다시금 회상하는 듯했다. 무대 위를 장악하는 힘찬 성량의 목소리와 여유로운 입담, 기분 좋아지는 푸근한 미소까지, 송창식의 무대를 통해 음악이 주는 힐링의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201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요즘, 조금은 어수선하기도 하다. 하지만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즐기며 나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 참가 회원들은 송년 패밀리 파티를 통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추억과 재미를 얻었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내년에도 더 클래식 500이 매 시즌 준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함께하기에 더욱 즐거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건 어떨까.



# 특별한 연말연시를 기념하는 더 클래식 500, 2016 WINTER CALENDAR

201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 더 클래식 500에는 다채로운 즐거움이 더욱 충만하다.  
좋은 이들과 함께하는 송년 파티, 향기로운 마음을 나누는 바자회 등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 WINTER EVENT CALENDAR

DECEMBER 2016	JANUARY 2017	FEBRUARY 2017	MARCH 2017
 <p style="text-align: center;"><u>12</u></p> <p><b>3주차</b> [이벤트] 더 클래식 500 송년 패밀리 파티 '별이 빛나는 밤에' [동호회] 댄스 동호회 송년 댄스 파티</p> <p><b>4주차</b> [문화데이] 한지공예 [자원봉사단] 향기로 나누는 향수 바자회 (20~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u>1</u></p> <p><b>2주차</b> [문화데이] 신년 소망 캘리그래피 '마음먹은 대로, 바라는 대로'</p>	 <p style="text-align: center;"><u>2</u></p> <p><b>2주차</b> [문화데이] '더 클래식 500 품격 있는 시니어' 이미지 메이킹</p> <p><b>3주차</b> [이벤트] 밸런타인데이 이벤트</p>	 <p style="text-align: center;"><u>3</u></p> <p><b>2주차</b>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대만 편(7~10일)</p> <p><b>3주차</b> [이벤트] 화이트데이 이벤트 [문화데이] 설레는 봄 마중 '드라이 플라워'</p>

## 감성 충전 이벤트



매월 다채롭게 준비되는 더 클래식 500의 프로그램은 입주 회원들의 일상을 더욱 활기차고 유쾌한 시간으로 채워준다. 특히 이번 겨울 시즌에는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송년 패밀리 파티와 바자회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음악과 춤을 통해 활기차고 신나는 연말 분위기를 즐기면서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다가오는 2017년에는 신년의 의미와 소망을 기원하는 문화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2월과 3월에 진행될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이벤트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3월에는 대만으로 떠나는 '꽃보다 청춘' 여행을 시작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한 스페셜 클래스까지 봄 마중을 나서는 기분 좋은 설렘도 느낄 수 있다.



## 동호회

이름	내용	일시	회비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동호회	월요일 15:50~17:20	연 24만원
검도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아래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인의 모임(강사: 이봉주 회원 / 재능기부)	화·목요일 19:00~21:00	무료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금요일 15:00~18:00(바둑 대회: 반기별 1회)	연 10만원(입회비: 10만원)
숙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혹서기·혹한기 휴회)	연 10만원
탁구	순발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만인의 스포츠	월·수요일 13:00~15:30	개인 별도(전문 코치의 1:1 맞춤형 지도)
댄스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월·화·목·금요일(주 4회) 09:00~09:50	연 35만원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수요일 17:00~18:00	무료
인터넷	온라인상 메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별도 공지	무료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별도 공지	무료

## 커뮤니티 프로그램

분야	이름	강사	요일	시간	장소	수강료
음악	신나는 금요일 노래교실	황선정	금	10:30~11:30	4층 다목적실2	무료
	토요 남성 통기타	안승제	토	14:00~15:30		5만원(1개월)
	토요 여성 통기타	안승제	토	15:40~17:10		5만원(1개월)
	11 개인 통기타 교습	안승제	개별	시간 조정		4만원(1회)
건강	탄탄튼튼(저강도 근력운동)	강민서	월,수	09:00~10:00	4층 다목적실2	무료
	탁구교실(1:1 개인 교습)	김연경	월,수	13:00~15:30(10분)	B동 4층 GX룸	5만원(1개월)
	검도	이봉주 회원(재능기부)	화,목	19:00~21:00	4층 다목적실1	무료
	예술치유반	황인옥	수	14:30~15:20	4층 다목적실2	무료(재료비 별도)
	예술치유 미술 중점반	황인옥	목	10:00~11:30	4층 다목적실3	8만원(재료비 포함/월)
미술	그림교실(서양화)	이은규	토	19:00~21:00	A동 7층 다알리아2	6만원(1개월)
댄스	왕초보 라틴(차차차)	김복옥	월	11:00~11:50	4층 다목적실1	5만원(1개월)
	왕초보 모던(왈츠)	진보성	목	11:00~11:50		5만원(1개월)
	발레 기초반	최성이 회원	목	16:00~16:50		6만원(1개월)
	소셜 기초	박강현	수	16:00~17:30		5만원(1개월)
	소셜 초급	박강현	수	17:00~17:50		5만원(1개월)
컴퓨터 IT	컴퓨터 왕기초반	장정현	화,목	09:00~10:20	A동 7층 프리지아2	15만원(3개월)
	참 쉬운 실생활 컴퓨터(활용반)	장정현	화,목	10:30~11:50		15만원(3개월)
	실생활 스마트폰	조민하	화	10:00~11:30	4층 다목적실 2	무료
어학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A)	조영숙 회원(재능기부)	화,목	14:30~15:20	A동 7층 다알리아2	6만원(3개월)
	왕초보 영어회화			16:00~16:50		6만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B)			17:30~18:20		6만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C)			20:00~21:00		6만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초급)	고영자 회원(재능기부)	월,수	19:00~20:00	4층 다목적실3	6만원(3개월)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중급)			10:00~11:30		6만원(3개월)

사진 서터스톡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WINTER ISSUE



### 라구프만의 홀리데이 명품 디너, '아듀 2016 스페셜 뷔페'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특별한 디너 타임을 갖길 원한다면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뷔페 라구프를 제안한다.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하는 12월 24일과 25일, 31일 총 3일간 특선 요리들로 구성된 '아듀 2016 스페셜 뷔페' 프로모션을 놓치지 말길. 홀리데이 시즌 대표 메뉴인 칠면조구이는 올리브오일과 크로브를 발라 오븐에서 4시간 이상 구운 요리로 껍질의 바삭한 식감과 속살의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한다. 그리고 뷔페 메뉴로 다양한 시즈닝과 로즈메리 향으로 구워낸 양갈비구이와 특제 소스에 재워 구운 갈비구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 크랜베리 소스와 카페 드 파리의 컴파운드 버터를 발라 구운 바닷가재와 전복 요리는 테이블로 직접 제공되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럭셔리한 디너 타임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런치(12:00~14:30)와 디너 1부(17:00~19:00), 디너 2부(19:30~21:30)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6만5000원. 자세한 사항은 펜타즈 호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HotelPentaz](http://www.facebook.com/HotelPenta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02-2218-5770



### 라비앙로즈 '크리스마스 와인 페어링 디너' 개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와인 레스토랑 앤 바 라비앙로즈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와인 페어링 디너'를 제공한다. 라비앙로즈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인 만큼 그동안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테랑저 리저브 브뤼' '샤토 르 페이' '샤토 도피네 롱디옹' 등 총 3종류의 와인을 페어링해 선보인다. 와인과 조화를 이루는 코스 요리도 준비된다. 미각을 깨울 아무즈 부슈에 이어 잿 소스를 곁들인 전복찜, 비트와 밀키폼을 올린 바닷가재 달미도, 거위 간 무스의 한우 안심구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특선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와인 페어링 디너는 24일 1부(17:30~19:30)와 2부(19:30~21:30)로 나누어 진행되고, 25일은 시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격은 부가세 포함 15만 원이다. 한편 28일에는 샴페인 하우스 내 최고의 빈티지로 평가받는 '블랑드블랑 그랑 크뤼 2008'을 비롯해 '비베라 알트로베' '푸에르자' 등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와인 총 5종을 선보이는 와인 갈라 디너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facebook.com/HotelPentaz](http://facebook.com/HotelPenta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02-2218-5750~1



### 한파 녹이는 사랑의 라면,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

더 클래식 500 자원봉사단은 초겨울 한파를 녹이는 선행으로 지역사회 상생에 힘쓰고 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세종한글교육센터를 방문해 '온정의 손길 희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자원봉사단 박동현 단장과 김금자 회장을 비롯해 정병용 이사장, 다문화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종한글교육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중국, 동남아, 우크라이나 등 각국에서 온 다문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라면 2360개를 후원해 온기를 더했다. 한파 속에서도 한글 공부에 열정을 쏟는 다문화 교육생들의 열정에 감동한 박동현 단장은 라면과 함께 따뜻한 정을 느끼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더 클래식 500의 임직원과 입주 회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난 2011년 창단 이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통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또 난치병 환자 의료비 후원, 지역 소외 이웃 생필품 지원, 김장 나눔 행사 등 사랑을 기다리는 지역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GYM

GOLF

SPA

SWIMMING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90 Neungdong ro, Gwangjin-gu, Korea 05065 Tel:+82 2 2218 5800 www.pentaz.co.kr

*Pentaz*  
EXECUTIVE RESIDENCE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안내문의 : 02) 2218-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구 자양동) 스타시티 단지 내

[www.theclassic500.com](http://www.theclassic500.com)